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빈 상가 해소 나선다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의 빈 상가 해소를 위한 입자로 지원에 나선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등 지식 기반 경제사회 전환에 대응해 정보기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입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구역 내 정보기술(IT)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에

등록이 돼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고일 이후 연 300만원 이상(월 입차료 합계 기준)의 비주거용 사무실을 임차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연 입차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지원금은 입차계약 후 연 단위 사후생산 방식으로 집행된다.

입주기업 대상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최대 2000만원

AI·데이터 등 정보기술 기업 성장·지역경제 활력 기대

특히 나주시는 전략적 발굴·유치기업, 관의 이전기업, 혁신도시 상가 공실을 최다구역인 빛가람행정복지센터 인근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해 혁신도시의 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

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정보기술 기업의 혁신도시 내 정착과 확장을 돕는 동시에 AI와 데이터 중심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앞당겨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기업 지원사업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미래전략과 소관)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건물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업종 기업을 지원해 혁신도시 전반의 균

형 있는 기업 입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빈 상가 문제 해결과 정보기술기업 유치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며 “AI,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환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여수, 내년 1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

웅천동 예울병원 내 조성…15개 산모실·신생아실 등 갖춰

여수시는 지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 웅천동 예울병원 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을 개원한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은 산모실 15개실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산모교육실, 피부관리실, 카페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을 갖추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산

후조리와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전남도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용자 예약 편의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전남아이톡’과 연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예울병원(061-655-3535, 내선 6)을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화 예약과 상담을 진행한다. 예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조성되는 예울병원 전경.

약 대상은 임신 28주 이상 임신부로,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도내 주

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659-4263)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산모들이 겪어온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친화적인 도시 여수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광군은 최근 영광스포티움에서 2024·2025 5대 체전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시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영광, 5대 체전 성공개최 기념 시계탑 제막

군민 화합·열정 상징 ‘랜드마크’ 기대

영광군은 최근 영광스포티움에서 2024·2025 5대 체전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5대 체전 성공개최 기념 시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지난 2년간 군민과 선수단이 함께 쌓아올린 도전과 성취의 순간을 기억하고, 영광군이 스포츠 선도시로 도약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장, 정병환 영광군 체육회장, 황후선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많은 체육인들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해 제63회 전남도 체육대회와 제32회 전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올해에는 제20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제37회 전남

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전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15년만에 영광에서 열린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2위, 제32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영광군 체육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군민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영광을 뜨겁게 달군 시간을 오래 기억하고, 군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담아내기 위해 시계탑을 건립했다”며 “이 시계탑이 영광군이 걸어온 도전과 성취, 군민의 화합과 열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봉 기자 ykjp98@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근 영국 외식·유통업체 트리스톤과 대숲맑은 담양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대숲맑은 담양쌀, 영국 수출 본격화

초도 물량 선적…딸기 등 수출 확대 예정

담양군은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근 영국 외식·유통업체 트리스톤과 대숲맑은 담양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고 16일 밝

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9월 담양군과 담양RPC가 영국 업체 측과 연간 납품 계약을 맺은 이후 추진된 해외 판로 확대 노력의

첫 성과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3년 연속 선정,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 등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왔으며 유럽 시장 요구에 맞춘 GAP 인증시설과 도정 시스템을 갖춘 담양군통합RPC가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담양군은 프랑스와 베트남 등으로의 수

출 경험에 최근 높아진 한식 선호 흐름이 더해지며 영국 공급 계약이 딸기 등 담양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광양시청년연합회, 고향사랑 상호 기부 ‘눈길’

포항향토·순천청년연합회 등 300만원 기탁

광양시청년연합회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 협력을 이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청년연합회 회원 일동의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연합회는 자매결연 청년단체들과 고향사랑 상호기부의 취지를 공유하며, 포항향토청년회와 100만원, 순천시청년연합회와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상호 기탁

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해에도 포항향토·제주시·영천시·순천시 4개 지자체 청년연합회와 단체별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올해까지 이어진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한 청년단체 간 연대와 상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in@gwangnam.co.kr

목포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4년 연속…팝업교육 높은 평가

목포대 디지털전환지원센터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20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사업에 참여한 목포대는 올해까지 매년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으며 디지털 전환 교육 분야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왔다. 평가는 정량평가(70점)

와 정성평가(30점)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국의 10개 대학의 실적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평가방식으로 이뤄졌다.

디지털전환지원센터는 올해 도립캠퍼스뿐만 아니라 광주·담양·목포 원도심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팝업교육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교육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며 총 6회차의 실전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청자골예술단·엘시마트 기탁

추운 겨울 강진군을 향한 따뜻한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자골예술단(회장 김인호)은 최근 현금 100만원, 엘시마트(대표 황승용)는 두유 100세트, 청담식자재마트(대표 황철상)는 현금 2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을 위해 써달라고 강진군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강진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청자골예술단은 매주 망호선창작에서 공연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2024년에 도 3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엘시마트와 청담식자재마트도 매년 소중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강진원 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 온정의 마음을 실천해 줘서 감사하다”며 “이런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는 강진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